

현대오일뱅크, 난방유 지원 캠페인

현대오일뱅크는 12월 말까지 생활형편이 어려운 소년소녀 가장에게 난방유를 지원하는 <사랑 가득 희망에 너지 캠페인>을 펼친다.



따뜻한 겨울 선물을 아이들에게 나눠주고 어렵게 사는 이웃에 게 한 번 더 관심을 두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우리 기자>

캠페인은 고객들이 조손 가정이나 소년소녀 가장의 사연을 현대오일뱅크 홈페이지에 올리면 파란 산타들이 난방유를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현대오일뱅크는 행사기금으로 1억원을 마련하고 이웃들의 따뜻한 마음이 깃든 사연을 기다리고 있다.

2005년부터 매년 난방유 지원 캠페인을 펼쳐온 현대오일뱅크는 어린이재단과 함께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심사해 평균 20만원어치씩, 약 500곳에 난방유를 지원할 예정이다.

신방호 현대오일뱅크 부사장은 “산타 할아버지처럼

<화학저널 2009/11/30>